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항세트는 인문계열, 사회계열의 두 분야로 나누어 출제하였고, 각 계열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 평가, [문제 3]은 적용 추론의 능력을 측정하며 3번 문항은 계열별로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인문계열은 영어지문을 문항의 부분으로 추가 제시하여 외국어 지문의 이해능력 측정을 포함시켰고, 사회계열은 자료의 해석을 통한 추론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문항마다 개별적인 측정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아래와 같다.

[문제 1]은 <제시문 1>부터 <제시문 5>까지를 읽은 후,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제시문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문들로부터 처벌과 보상이란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처벌'을 통한 변화 유도 방식으로,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5>를 '보상'을 통한 변화 유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섯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를 이용한 요약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문제 2]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제적인 처벌이나 유인책 보다 내적 동기의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가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제시문 6>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적인 처벌과 유인책을 평가하여 그 한계점을 비판하는 문제로 대학수학능력의 기초가 되는 비판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6>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습관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범칙금 부과나 유인책들 보다 '옐로 카펫'이라고 하는 단순한 장치가 교통 사고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임을 이야기 하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4>에 나타난 처벌과 <제시문 5>에 나타난 보상책을 묶어서 평가하고, 외부적인 처벌/유인책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더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공통의 한계점을 정확히 비판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제 3 (인문계열)]에서는 주어진 영어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지를 파악하여, [문제 1]에서 파악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방안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먼저 영어지문의 요지는 "획득을 통한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소유물을 상실했을 때의 두려움이 더 크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문제 1]에서는 <제시문 1~5>를 통하여 "보상"과 "처벌"이라는 핵심어를 찾았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두 개념을 연결시켜서 결론을 도출해야만 이 문항의 답안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다. 즉, "손실회피"의 성향이 곧 "보상" 보다는 "처벌"에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추론이 가능해야한다. 이 연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보상"이라기보다는 "처벌"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즉,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이 문항의 정답 작성이 가능하다. 첫째,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발견해야하는 핵심어인 "보상"과 "처벌"의 대립적인 분류, 둘째, 영어지문의 정확한 내용 파악을 통한 핵심개념인 "손실회피성향"의 발견, 셋째, "손실회피"와 "처벌"이라는 개념의 연계를 통한 결론 도출 등이다. 수험자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이러한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능력을 함께 보려는 것이 이 문제출제의 의도이다.

[문제 3 (사회계열)]은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가치함수를 바탕으로 [문제1]에서 제시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처벌/보상 방법의 효율성 측면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즉 본 문제에서는 <제시문 1~5>에서 보여주는 처벌/보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처벌과 보상이 사람들이 느끼는 손해와 이익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또한 이익과 손해가 보여주는 비대칭의 가치함수를 바탕으로 처벌/보상을 통한 변화의 효율성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적절한 답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대립적인 개념의 핵심어인 "보상"과 "처벌"이 발견되어야 한다. 둘째, 가치함수 그래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핵심 개념인 "손실회피성향"이 인지되어야 한다. 셋째, "손실회피"와 "처벌"이라는 개념을 연계하여 행동 변화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수험자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이러한 해석 및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능력을 함께 보려는 것이 이 문제출제의 의도이다.

[인문계열 문제 3의 번역문]

인간은 손실을 싫어한다.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애착이 강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감은 더 심해진다.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결국 얻을 것 보다 잃을 게 많다는 의미이다.

왜 우리는 그토록 손실을 두려워하는가? 손실회피성향은 강한 감정의 발로이다. 회피성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근심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손실회피는 공포심의 표현이다. 이것이 왜 우리가 긍정적인 인센티브보다 부정적인 인센티브에 더 영향을 받는 가를 잘 설명해준다. 찰스 다윈은 "누구나 칭찬보다 비난을 더 예민하게 감지한다."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10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10를 분실하고 더 화를 낸다. 대략적으로, 손실의 아픔은 획득의 행복감보다 두 배 정도 크다고 한다.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한 번의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의 칭찬을 해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 1	•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인 “처벌”과 “보상”이 언급되어야 함. • 다섯 개의 제시문들이 처벌과 보상이란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10점
문제 2	• <제시문 6>에 나타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 변화의 효과가 서술되어야 함. •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 변화와 외적/의도적/강제적 처벌과 유인의 차이점이 부각되어야 함. •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 변화의 입장에서 외적/의도적/강제적 처벌과 유인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이 비판되어야 함. •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예시가 활용되어야 함.	210점
문제 3	**<인문계>** •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논의되었을 대립적인 개념인 “보상”과 “처벌”이 언급되어야 함. • 추가로 제시된 영어지문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핵심 개념인 “손실회피성향”이 인지되어야 함. • “손실회피”와 “처벌”이라는 개념을 연계하여 행동 변화방안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있게 서술되어야 함. **<사회계>** •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논의되었을 대립적인 개념인 “보상”과 “처벌”이 언급되어야 함. • 추가로 제시된 가치함수 그래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핵심 개념인 “손실회피성향”이 인지되어야 함. • “손실회피”와 “처벌”이라는 개념을 연계하여 행동 변화방안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있게 서술되어야 함.	280점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섯 개의 제시문을 ‘처벌’과 ‘보상’(긍정적 또는 부정적 유인)이란 두 입장으로 나누되, 제시문 1, 4를 전자의 입장으로, 제시문 2, 3, 5를 후자의 입장으로 기술한 경우 • 이와 더불어 각 제시문의 요약에 공정한 처벌(<제시문 1>), ‘햇볕정책’ (<제시문 2>), 영수증 복권화 (<제시문 3>), 유죄판결을 받은 장 발장(<제시문 4>), 스모선수들의 보상을 위한 승부조작(<제시문 5>) 등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A0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핵심어 대신 유사어를 사용한 경우, 또는 • 문장구성 등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B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처벌’과 ‘보상’이란 방식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또는 • 각 제시문의 요약이 부실한 경우
	B0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처벌’과 ‘보상’의 구별이 완벽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 제시문 6의 핵심 논점으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변화 유발이 더욱 효과적임을 파악하였으며, 그를 통해 문제 1의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이 부작용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 변화' 대 '외부적/강제적/의식적 유인책 (처벌과 보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처벌과 보상의 공통적인 한계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효과의 미미함을 제시문 4, 5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적함.
	A0	• 제시문 6의 핵심 논점으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변화 유발이 더욱 효과적임을 파악하였으며, 그를 통해 문제 1의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이 부작용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B	B+	• 제시문 6의 요지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변화 유발이 더욱 효과적임을 파악하였으나, 그 관점에서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함. • 제시문 4와 5의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긴 하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함.
	B0	• 제시문 6의 요지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변화 유발이 더욱 효과적임을 파악하였으나, 그 관점에서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함. • 제시문 4와 5의 문제점 중 하나만을 지적함.
C		• 제시문 6의 요지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그 관점에서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함.
D		• 제시문 4, 5, 6의 내용 중 핵심 내용과 관계없는 일부만을 나열한 경우
F		•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문제 3] (인문계열)

등급		[채점기준]
A	A+	• <문제 1>의 두 입장을 "보상"과 "처벌"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제시 • 문항에 포함된 영어지문을 적절히 요약: "보상의 기쁨" 보다 "손실의 상실감"이 더 크다는 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처벌"이 곧 "손실" 유발한다는 추론이 포함되어야 함 • "처벌"이 "보상"보다는 변화를 유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함 • 적절한 예시가 주어져야 함 (예: 같은 양의 손실이 획득보다 더 큰 상실감을 주는 예 등) •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움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임 (예: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한 연결) • 주어진 자수(600자) ±10%의 오차 이내로 작성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됨, 그러나 - 핵심어를 파악하였지만 핵심어에 근접하는 표현(예: '손실' 대신 '손해')을 사용, 또는 -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함, 또는 -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또는 - 적절한 예시가 부족함, 또는 -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남, 또는 - 문장의 연결이 다소 어색한 곳이 나타남, 또는 -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
B	B+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됨, 그러나 - 핵심어와 요지를 파악하였으나 "처벌"이 곧 "손실"로 연결된다는 추론에는 미흡, 또는 - 적절한 추론을 하였지만 핵심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함, 또는 - 예시가 없고,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 또는 -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또는 -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남, 또는 -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런 연결이 가끔 나타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됨, 그러나 - B+의 감점 요인이 2 항목 이상 포함됨 - B+의 감점 요인 중 1 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핵심어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논리적인 추론이 결여됨, 또는 •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함, 또는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춤
F		•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또는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음

[문제 3] (사회계열)

등급		[채점기준]
A	A+	• 그래프 해석에 있어 좌우가 비대칭임을 인지하고 이익일 때 느끼는 가치보다 손실일 때 느끼는 가치 상실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경우 •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익(손실)이 [문제1]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상 (처벌) [혹은 긍정적 유인 (부정적 유인)]과 연관 지은 경우 • 가치함수에 근거하여 처벌이 보상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더 크고 결국 처벌이 보상보다 효율적으로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요지를 명확하게 기술한 경우 • [가점 요인] A0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을 기술한 경우 A+로 인정함 - 그래프 해석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이 늘어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결국 보상과 처벌이 늘어날 수록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언급한 경우(그러나 처벌이 보상보다는 효율적으로 행동 변화를 일으킨다는 부분은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A0	• 그래프 해석에 있어 이익일 때 느끼는 가치보다 손실일 때 느끼는 가치상실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해석하고 가치함수에 근거하여 처벌(부정적 유인)이 보상 (긍정적 유인)보다 효율적인 행동변화를 일으킨다는 요지를 명확히 기술하였으나, - 좌우가 비대칭임을 인지하지 않고 기술한 경우 - 이익과 손실이 [문제1]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 보상(긍정적 유인)과 처벌(부정적 유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경우
B	B+	• 가치함수에 근거하여 처벌 (부정적 유인)이 보상 (긍정적 유인)보다 효율적인 행동변화를 일으킨다는 요지는 파악하였으나, - 가치함수 그래프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 가치함수의 해석과 [문제1]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B0	• 가치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하였으나 처벌이 보상보다 효율적인 행동변화를 일으킨다는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C		• 가치함수그래프나 [문제1]의 요지는 기술 하였으나 비교 분석 모두 모호한 경우
D		• 가치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1]의 요지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
F		• 문제와 전혀 다른 내용을 서술한 경우